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음 10월 29일) 제21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가산단 전환 근거 마련  
국내기업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수익계약 특례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 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익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의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건의

2020년 자동실효 대상 3136개소, 4조5017억원 자원 필요  
14개 시·군과 협력해 중앙부처에 국비 우선 지원 요청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현행법상 관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

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시공원 93개소 14.34㎢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지만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는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실효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수립 등 일몰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결정했다. /김진성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 7158명 공개  
10월까지 1조7015억원 징수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명단 공개인원이 전년보다 1만4245명이 줄었다. 이번에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곳이 새로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257억원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는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김영태 기자

### 매일 INDEX

2면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유임 결정  
4면 - 전주 '쓰레기 대란' 재현되나?



전주시는 5일 첫 번째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이 조성된 호성동 전북청소년지림생활관 '소통의 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등 6개 마을 공동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어울림정원 개소식을 가졌다.

## 첫번째 '전주 우리마을 어울림정원' 탄생

시, 호성동 '소통의 정원' 서 개소식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첫 번째 어울림정원이 탄생했다. 전주시는 5일 첫 번째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이 조성된 호성동 전북청소년지림생활관 '소통의 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등 6개 마을 공동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어울림정원 개소식을 가졌다. 천만그루 정원시대는 전주시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단 33㎡(1평)의 땅이라도 있다

면 나무와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낸 첫 번째 어울림 정원 조성을 축하하고, 시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가는 정원문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조성한 정원을 시민이 주체가 돼 사후관리에 힘쓰고 주민들끼리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협약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첫 어울림정원으로 탄생한 '소통의 정원'은 만12세에서 23세의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관찰을 받는 위기 청소년이 생활하는 전북 청소년지림생활관의 삭막한 공간에

나무와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사)푸른전주운동본부(대표 허종현)가 공모해 만들었다. 시는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총 128개의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춰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민 정원사 양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마을과 이웃들의 이야기가 꽃피우는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권원로 구간 교통정체 해소 개선공사 추진

상습교통정체구간인 전주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까지 권원로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출·퇴근시간 완주공 운진·봉동 방향 출퇴근 차량이 몰려들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지역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총 25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권원로 확장공사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아중 앞 호성

로 구간에 대해서도 일부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공사기간 동안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원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Jeongeup-si Council